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양박’ 허정무호에 재승선 할까?

박지성

박주영

지성-무릎 부상 회복…가능성 커
주영-허감독 현지 점검 후 결정
이영표·설기현은 합류 어려울듯

축구대표팀 코칭스태프가 23일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해외파 점검차 출국하면서 박주영(23·AS모나코)과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허정무호에 다시 승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박태하 코치와 함께 프랑스로 떠났다. 프랑스리그에 안착한 박주영을 보기 위해서다. 정해성 수석코치도 박지성과 김두현(26·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 설기현(28·풀럼)을 점검하려고 영국으로 출국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양박’ 박주영과 박지성의 대표팀 재발탁 여부다.

박주영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때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었을 뿐 필드골이 없는 데다 모나코 이적과 맞물려 지난 10일 북한과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명단에서 빠졌다.

박주영은 모나코 입단 후 짧은 적응 기간에도 데뷔전이었던 지난 14일 FC 로리앙전에서 1골 1도움으로 2-0 승리를 견인했고 22일 마르세유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어도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박주영이 파리 생제르맹(24일), FC릴(28일)과 경기에서도 허정무 감독 앞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대표팀 발탁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박주영 대타로 5일 요르단과 평가전, 10일 북한과 최종예선 1차전에 가동했던 조재진(전북)이 기대 이하였고 신영록(수원)은 허벅지 부상 여파로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정무 감독은 출국 직전 “1~2경기로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다”면서도 “박주영을 비롯해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등 해외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선수”라며 며 발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허 감독은 “해외파라고 해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이 허정무호에 재승선할 가능성도 높다.

무릎이 좋지 않아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3차 예선부터 뛰지 않았던 박지성은 북한과 최종예선에는 아예 차출되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위한 허정무 감독의 배려였다.

다행히 박지성은 슈퍼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장에 이어 정규리그 첫 경기였던 지난 21일 첼시전에서 시즌 1호 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최근 답답한 플레이 탓에 축구팬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대표팀으로서는 박지성이 합류한다면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허정무호는 북한전 1-1 무승부로 최종예선 출발이 좋지 않아 다음 달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전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박지성의 가세가 절실하다.

김두현은 허정무 감독의 호출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한 이영표(31·도르트문트)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설기현은 리그 적응, K-리거와 포지션 중복 등으로 대표팀 합류 가능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대표팀은 9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11일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에 이어 15일 UAE와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마스코트 ‘자쿠미’ 공개

2010년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축구대회 마스코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조직위원회(SALOC)는 지난 22일 월드컵 개막 D-626일을 맞아 국영 방송사 SABC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공식 마스코트 ‘자쿠미’(Zakumi·사진)를 일반에 공개했다.

축구장 잔디와 같은 녹색으로 머리카락을 물들이고 ‘SOUTH AFRICA 2010’ 글귀가 새겨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자쿠미는 남아공의 ‘빅 5’ 동물인 표범을 형상화했다.

남아공 디자이너의 손에 의해 탄생한 자쿠미는 남아프리카를 뜻하는 ‘ZA’(Zuid Afrika.네덜란드어)와 ‘Kumi’(10이란 뜻을 지닌 흑인 언어)의 합성어로, ‘남아공 2010년’을 뜻한다. 자쿠미는 또 남아공 남부지방에서는 ‘이리 오세요’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조직위측은 밝혔다.

조직위는 자쿠미에게 생년월일이 1994년 6월16일로 기재된 출생부도 부여했다. 1994년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가 철폐된 해이고 6월16일은 1976년 소웨토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날이다.

‘미래 한국축구 주역’ U-16 청소년대표

다음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청소년대표팀 선수들이 23일 오후 파주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그라운드를 돌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축구 오늘 최종 10라운드

PO 향한 막판 ‘승수쌓기’

‘AFC 챔스리그 출전’ 전남, 자동 진출

24일 4개 축구장에서 2008 삼성하우젠컵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리는 최종 10라운드 경기가 펼쳐진다.

남은 티켓은 2장.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A조 경남,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B조 2경기의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6강팀이 결정된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 6팀 중 올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팀 포항 스틸러스과 전남 드래곤즈는 자동적으로 2장의 티켓을 확보해두었다.

그리고 수원 삼성·부산 아이파크·FC서울·경남 FC·제주 유나이티드·인천 유나이티르로 구성된 A조에서는 수원이 5승3무1패 승점 18로 1위를 확보, 24일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다.

전북 현대·성남 일화·울산 현대·대전 시티즌·대구 FC·광주 상무가 각축을 벌인 B조에서는 전북이 5승4무1패로 승점 19를 챙겨 1위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고 사실상 플레이오프에 합류했다.

A조에 배정된 티켓 중 남은 한 장의 행방은 부산과 경남의 자리 싸움에 달렸다. 부산은 5승1무4패(승점16)로 전 경기를 끝마치고 23일 현재 2위를 지키고 있지만,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경남(승점13)의 행보에 따라 3위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경남이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수원과의 최종전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최종 승점은 16으로 부산과 경남은 동점이 된다.

이럴 경우 경남이 골득실차에서 부산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남은 티켓은 경남의 몫이 된다.

B조는 5승1무3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성남(승점16)이 최종전에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할 경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성남은 광주 월드컵 경기에서 열리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울산(승점15)-대전(승점13)의 맞대결 결과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는다. 광주전 5경기 연속 무패(4승 1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성남은 리그 최하위 광주를 상대하게 돼 6강 진출이 낙관적이지만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성남을 상대로 최종전을 치르게 된 광주는 김승용과 강민혁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선수 기용 폭이 넓어진데다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이 덜한 만큼 이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광주의 최후의 반격에 따라 B조에 의외의 혼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성남이 광주에게 질 경우 울산과 대전 경기의 승자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다.

성남과 광주가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비길 경우 울산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성남의 무승부시 울산이 대전을 꺾고 승점 3점을 챙긴다면, 플레이오프 티켓은 울산에게 돌아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韓·美 ‘골프 축제’

■ 24일 KLPGA선수권

신지애 상금왕 3연패 길목

9월 넷째 주 미국과 국내에서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골프쇼가 펼쳐진다.

24일~26일 경기도 이천 자유골프장에서 열리는 신세계배 KLPGA선수권대회는 SK에너지인비테이셔널에서 KLPGA 경기위원회가 내린 성급한 2라운드 취소 결정 탓에 우승 기회를 놓친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상금왕 3연패로 가는 길목에 고비가 될 전망이다.

SK인비테이셜에서 겪은 아쉬움도 풀어야 하는 신지애로서는 이래저래 우승을 양보할 수 없다. 엑스포츠가 매일 오후 1시부터 중계한다.

■ 25일 삼성베네스트오픈

김형성·황인춘 상금왕 경쟁

25일~28일 경기도 가평 가평베네스트골프장에서 열리는 SBS코리안투어 삼성베네스트오픈 삼성베네스트오픈 우승 상금은 1억2천만원으로 웬만한 투어대회의 곱절이다.

4천만원 차이로 치열한 상금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과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에겐 놓칠 수 없는 ‘특급 랠리’의 시발점이다. 1, 3라운드는 SBS골프채널이 오후 2시부터 중계하고 2라운드와 4라운드는 SBS 가 중계를 맡았다. 4라운드는 오후 3시3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 26일 PGA 챔피언십

최경주·앤서니 김 출전

26일~2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레이크골프장에서 개최되는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재미동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필 미켈슨, 짐 퓨릭, 케니 페리, 스티브 스트리커, 채드 캠벨, 스튜어트 싱크, 벤 커티스, 저스틴 레너드, 헌터 메이헌 등 팀 동료들을 꺾고 명실상부한 ‘포스트 타이거’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이다.

라이더컵에 나갈 수 없었던 최경주(38·나이키골프)와 어니 엘스(남아공) 등도 시즌 최종전의 왕좌를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다. /연합뉴스